

엔니오 모리꼬네·베토벤·조지오웰·생텍쥐페리...

영원히 기억될 명곡들 그리고 작품들

여느 명절과 달리 긴 연휴 기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이번엔 특정 아티스트들을 집중 탐구하며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건 어떨까. 올해 타계한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과 영화를 집중 감상해도 좋고,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을 만나는 것도 의미 있다.



◇서거 70년 소설가 조지 오웰
지난 1월 타계 70주기를 맞은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두 편의 소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시즘 사회를 반대하는 풍자소설 '동물농장'과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그 과정과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 '1984'다.

또 1920년대 경제공황 당시 식당 접시닦이 등 자신이 겪은 밑바닥 생활의 참상을 담아 펴낸 '파이와 런던의 바닥생활', 스페인 내전 참전 후 전쟁의 어리석음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담아 펴낸 '카탈로니아 찬가'는 르포 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조지 오웰 70주기를 맞아 프랑스 만화 작가들이 그의 삶과 시대와 작품세계를 재현한 그래픽 전기 '조지 오웰'과 '나는 왜 쓰는가' 등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을 엮은 '조지 오웰 산문선'이 이번 달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로 나왔다.

'1984'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날 수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존 허트와 리처드 버튼이 주연을 맡고 '일 포스티노'의 마이클 래드포드가 1984 메가폰을 잡았다.

◇탄생 120주년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는 항공회사에 들어가 15년간 우편항공로를 개척했고 이 기간 사막 횡단은 그의 문학 원천이 됐다.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정찰기 조종사로 복무한 그는 프랑스가 함락되자 미국으로 탈출,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인을 위로하기 위해 '어린왕자'를 썼다. 비행중대에 복귀한 그는 1944년 마지막 정찰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어린왕자'를 펴냈다. 최근에는 탄생 120주년을 맞아 문학과 지성사가 '어린왕자' 자수 그림책을 출간했으며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1943년 초판본 이미지를 담은 '어린왕자(코너스톤 간)'도 나왔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어린왕자'(2015)는 '쿠푸멘다'의 마크 오스본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제프 브리시스, 마리옹 꼬띠아르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대표작인 '어린왕자'와 함께 '남방우편기',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등을 함께 읽어봐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 기자 mekim@

◇7월 타계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와의 만남은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세계적인 감독들과 작업한 그의 필모그래피 덕에 뛰어난 명작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지난 7월 93세로 타계한 엔니오 모리꼬네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1961년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파시스트'를 시작으로 '황야의 무법자' 등 500여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했으며 그가 작곡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는 영화의 감동을 더한다. '헤이 트롤'으로 제88회 아카데미 음악상, '미션'으로 골든 글로브상, '언터처블'로 그래미상 등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했으며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프란시스코 코플라, 롤랑 조페 등 수많은 거장들과 작업한 그의 대표작은 셀 수 없이 많다.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나 소년 토도와 알프레도 할아버지의 우정이 담긴 '시네마 천국', '윈스 어번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데보라의 테마' 등의 음악도 눈길을 끈다. 미술관을 소재로 한 '베스트 오브'와 '피아니스트의 전설' 역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대표작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23곡이 담긴 '엔니오 모리꼬네 데뷔 60주년 기념 베스트 앨범 (60 Years of Music)'은 그가 직접 체코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음반으로 인기가 높다.

◇탄생 250주년 베토벤
코로나 19로 베토벤의 탄생을 기념하는 전 세계 수많은 공연들이 취소돼 안타까움을 주지만 관련 서적과 음반 등이 꾸준히 발매돼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

KBS 클래식FM 'FM실황음악' 진행자 최은규의 '베토벤-절망의 심연에서 불러낸 환희의 선물'은 현장감이 돋보이는 책이다.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로 나온 이번 책은 베토벤의 고향인 독일 본을 비롯해 그가 유서한 오스트리아 하이델베르크, 그

의 주 활동지였던 빈 등을 직접 발로 훑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당신에게 베토벤을 선물합니다'는 스스로를 '베토벤 스토커'라고 부르는 그녀가 3000 페이지에 달하는 편지와 연구 서적을 분석해 쓴 책이다. 또 마르틴 게크 전 도르트문트 음악학 교수의 '베토벤: 사유와 열정의 오선지에 우주를 그리다'는 유럽 지성사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엮어낸 베토벤 담론이다.

영화로도 베토벤의 삶을 만날 수 있다. 게리 올드만이 베토벤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불멸의 연인'(1999)은 베토벤의 '사랑'에 주목한 영화로 피아노협주곡 '황제', '교향곡 7번' 등 다채로운 음악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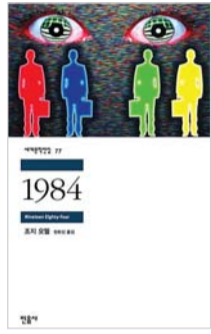
'카핑 베토벤'(2012)은 베토벤의 악보를 베끼는 안나 홀츠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거장 베토벤의 말년을 새롭게 조명한다. 에드 헤리스와 다이앤 크루거의 연기가 돋보이며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향곡 9번 합창'의 연주 모습은 전율로 다가온다.

'마지막 4중주'(2012)는 베토벤을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현악 4중주곡 14번'이 영화 전면에 내내 흐른다.

KBS 클래식 FM은 베토벤 250주년 기념 음반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를 내놓았다. 베토벤의 생애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로 분류하고 각 계절의 분위기와 상징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4개의 CD에 담았다. '아델라이데', '교향곡 9번 합창',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 등 30곡을 발췌한 캠프 등 대가들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책

'지금 이대로...당신이 옳다' 에세이가 주는 위로

연초부터 시작된 감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위로를 주는 에세이 5권을 소개한다.

▲지금 이대로 좋다(법륜)=그동안 법륜 스님이 SNS 매체를 통해 소통했던 '희망편지' 콘텐츠를 에세이로 정리한 책이다. 자존감, 우울, 사랑, 가족, 직장, 인간관계 등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 치솟는 집값, 나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월급,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에 힘 빠지는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아울러 나를 돌아보는 성찰을 강조한다.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며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권한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김탁환)=소멸에 맞서는 벗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책이다. 작가 김탁환이 발품을 팔아 전국의 마을을 살살이 돌며 쓴 르포형 에세이다. 책을 쓰기 위해 작가는 곡성군을 가장 많이 찾았다. 작가가 맞닥뜨린 주제는 '소멸'이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순간 소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자각한다.

이러한 고민에 방향을 제시해 준 이 곡성에서 발아현미를 연구하고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미실린'을 15년째 이끌고 있는 기업가이자 미생물학 전문가 이동현 박사다.

▲경계에 흐르다(최진석)=철학자 최진석의 첫 산문집으로, 삶과 사유에 대한 내밀한 부분을 담았다. 유년과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철학 공부의 시작, 칸트에서 장자로 시선을 옮기게 된 계기 등이 수록돼 있다. '경계에 흐르다'는 어느 한편에도 나누어지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불안하고 비밀스러운 경



계에서 빛어낸 삶의 무늬들이 특유의 정감어린 문체로 빛을 발한다.

"나는 경계에 있을 때만 웃음이 '나'다. 경계에 서지 않는 한, 한쪽의 수호자일 뿐이다. 정해진 틀을 지키는 문지기는 개다. 경계에 서야 비로소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다. 변화는 경계의 연속적 중첩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다(정혜신)=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의 내면은 공허하다. 그 때문인지 의외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적지 않다. 정혜신 박사는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부치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엔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적정 심리학'. 손수 지어먹는 집밥처럼 자신의 심리적 허기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 원리인데 다름 아닌 그것은 '공감과 경계'다.

▲예술가와 사물들(장석주)=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장석주는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전업작가다. 그의 책 '예술가와 사물들'은 예술가의 생애를 토대로 사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예술가의 일상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사물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대상 또한 작가, 화가,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동서양 예술가를 아우르며 사물도 담배, 우산, LP 판, 자전거, 스카프 등 다양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가 탐구

슬라보예 지젝·제인구달·최재천...

인문학 덕후들을 위한 인터넷 강좌



최근 인터넷은 인문학 강연과 지식 교류의 장이 됐다.

다양한 강의로 인기를 모은 tvN '어쩌다 어른',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를 론칭했다. 채널에서는 '책 읽어드립니다'와 '어쩌다 어른'을 디지털 형식으로 재구성해 공개하고, 새로운 강연자와 주제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진화 생물학자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가 진행하는 '다윈 읽어드립니다', '조선 시대의 집값' 등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역사에 접근하는 심층한 작가의 '역사 읽어

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영일 교수가 눈문을 쉽게 읽어주는 '논문 읽어드립니다', 황창진 신부와 성진 신부의 토크쇼 '마음 읽어드립니다' 등이 매주 공개된다.

(재)플라톤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플라톤 아카데미 TV에서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만날 수 있다. SBS CNBC와 공동기획한 '4부작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시리즈는 특히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과 이택광 교수가 대담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자본주의의 민낯에 대해 들려주는 김누리 교수의 강연, 제

인구달과 최재천 교수의 강연과 대담, 조정혜정 교수의 생생한 강의를 만날 수 있다.

또 김병준 서울대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사마천 사기', 고미숙 고전 평론가의 '웃음과 역설의 향연 열하일기', 유발 하라리의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 등을 만날 수 있는 '지혜의 향연' 시리즈와 10강으로 구성된 '김상근의 르네상스 인문학', 6강으로 이뤄진 '니체, 삶을 푼다'(백승영 흥익대 교수) 강연도 인기가 높다.

그밖에 최진석 철학자의 유튜브 채널 '새날 새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반야심경'과 '장자' 강의도 인기 강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 강좌